

기획

광주일보 제2기 독자위원회 4차 회의

광주일보 제 2기 독자위원회 4차 회의가 지난 13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1명 중 7명이, 본사에서는 조경완 편집국 부국장

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간 지면 분석 및 비판을 통해 본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선 지역공약 지속 제시… 후보들에 주지 시켜야”



■ 김경태 (광주은행 홍보팀장)
중앙 뉴스보다 지역 기사를



■ 김종울 (광주시 검도회 전무이사)
생활 밀착형 기사 대폭 늘려야



■ 문병훈 (지역언론개혁 대표)
선정적인 제목·사진 줄여야



■ 이묘숙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위원)
불법 광고물 시리즈 대안 없어



■ 이병철 (조선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주민 소환제’ 문제 왜 안 다루나



■ 이영선 (광주잡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
집 없는 서민 문제 고민해야



■ 최희동 (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해외 여행지 소개 시기 안맞아

▲이병철 = 광주일보 정치면을 보면 광주일보가 지향하는 바를 모르겠다. 팩트만 있고 방향이 없다. 열린우리당, 참여정부가포함, 한나라당에 대한 광주·전남 시민들의 보편적 분위기를 알고 있지 않나.

최근 한나라당의 정책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는데 부산 지역에서 열린 것과 대조적으로 광주·전남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다는 부산과 달리 광주는 너무 늦었던 것 같다. 광주일보도 미리 양 후보측에 현안에 대한 질문서를 보내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최희동 = 정치면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중앙지가 이명박·박근혜 후보 위주로 가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광주일보도 그쪽으로 가면 되겠는가.

공약 문제의 경우 향후 대선 후보가 광주·전남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시키고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바란다.

▲문병훈 = 지난 5월 28일 ‘광주·전남 대선 공약 이것만은 꼭 반영’이라는 제목으로, 1면 3면에 게재했는데 지속적으로 후보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각 캠프에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 수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시기가 만큼 그럴 때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선 = 한나라당 토론회 때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이 ‘대운하’문제다. 경부운하, 대운하, 한반도운하 등 말도 많다. 또 호남 지역은 포함되지 안되는지 알려줘라. 관련 질문을 후보측에 한 뒤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다면 그렇게 보내왔다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묘숙 = 지난 12일자 19면, ‘정부, 광주·투기과열지구 해제’ 왜 미루나’, 지난달 21일자 19면 ‘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둘러라’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된 사실이 실렸다.

광주지역 주민들의 자가 보유율이 46%인데 주택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가. 이제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다.

▲김경태 = 생활 밀착형 기사가 부족하다. 광주의 경우 서민들이 돈 들이지 않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품앗이구의 경우 대형마트의 개점으로 자동차가 몰리면서 주민 여가공간이 위축되고 있다. 광주천을 체육 공간으로 개발해 청계천처럼 사랑받는 장소로 바꾸는 문제를 광주일보가 다루었으면 한다.

▲최희동 = 경제면이 취약하다.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다. 경제면을 꾸준히 읽다보면 상당한 기사가 나오는 것 같다. 보도자료에 의한 나열식 기사가 많다는 것 아닌가.



광주일보 제 2기 독자위원회 4차 회의에 참석한 독자위원들이 지난 2개월간의 광주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또 경제면 2개면 중 한 면을 중소기업경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를 발굴해 실으면 한다. 레저면의 경우 해외 여행지 소개의 경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김경태 = 최근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 기사와 7일자 11면 ‘황당한 기름값’ 기사, 장마철 관련 기사는 시의적절했다. 하지만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체는 크게 다루지 않은 것 같다. 또 서민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인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서민 경제가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광주·전남 지역 분위기를 반영해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모순 아닌가. 아이들과 함께 읽는 독자들 많다. 고려했으면 한다.

지난 5일자 7면 광주, 교수·의사 등 800여명 가출 10대 성매수 ‘총격’ 기사를 쓰면서 ‘뭔데 못 말라주며 성관객’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너무 선정적이다.

▲문병훈 = 스포츠면도 비슷하다. 지난달 31일, 1일, 4일 등 2주간 무려 5번이나 스포츠면에 비체발리볼 선수들의 사진을 크게 실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다. 독자를 눈요깃거리로 제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기업 상생’, ‘황당한 기름값’ 기사 시의적절 ‘오지호 유작 돌려받자’ 성과 나오게 더욱 분발

못한 것 같다. ▲이묘숙 = ‘오지호 유작 돌려받자’ 시리즈의 경우 지난 10일자 15면 ‘오지호 유작 9월 광주오 나’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는 것 같다. 정말 잘하고 있다.

지난 4월 기획 기사로 실린 ‘불법 광고물 판치는 도시’ 시리즈의 경우 누구나 아는 내용을 다시, 크게 다룬 것 같은데 대안이 없고 달라진 것 없었더라. 무늬만 기초질서 시리즈로 급히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퍼펙트 눈술라나 하이틴 공부합시다 코너를 운영하면서 같은 신문에 음담 패설로 가득찬

여성 테니스 스타들의 지나친 노출 장면을 보여 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반면 지난달 21일자 ‘말짱은 전남 관광 순환버스 타보라’라는 기사의 경우 기자가 직접 체험하면서 보여줘 기사의 전달력이나 사실성 등이 피부에 와 닿았다. 6월 항쟁 20년 기획 기사도 참신하고 좋았다.

▲이병철 =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요즘 울란 때문에 고민이 많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언론에서 가르쳐줬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주민 소환제’ 문제는 광장히 중요하다. 지

역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주민 소환제를 활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게 부각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FTA도 비슷하다. 농업부면에서 FTA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해 정립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영선 = ‘금융업계 CEO살피보라’라는 기사를 봤는데 친절하게 광주일보 출신 인사는 몇 명이라는 식으로 부각시키더라. 전형적인 학연, 지연 부추기는 기사 아닌가 싶다. 경제면의 경우 일관되지 못한 것 같다. 언젠가는 성장이었다가 또 양극화, 침체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최희동 = 대선주자들에 대한 정책이나 검증 문제를 알차게 다뤘으면 한다. 최근 지역 유력 신문사와 함께 대선 공동보도를 한다는 사고가 나왔는데 기대가 크다. 각 지방 유력신문사들의 서울 공동취재팀도 구성해 보는데 어떤가.

▲김경태 = 신문 내용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독자 선호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해보기 바란다. 이를 수렴해서 해당 지면을 늘리거나 축소하는 등 반영한다면 독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묘숙 = 지난 6월 13면 ‘거실에 TV를 치워라’는 제목의 기사는 진부하다. 좁은 아파트 넓게 사는 법, 누구는 할 줄 모르나. 돈이 문제 아닌가. 사진도 잡지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 People & Life 면도 인터넷에 다 나온 내용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소식도 아는데 굳이 할 말 늦게 뒷북 치어 되나. 지면 낭비에 시간 낭비 아닌가 싶다.

정리=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3-1140, 521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무등공인중개사
☎(대)383-5221
● 건물투자
● 모텔매매
● 상가·사무실(상무지구)
● 임야(농장)
● 공장·창고 및 기타

정우부동산
☎(대)675-4788
건물매매
토지매매
상가·사무실(상무지구)
시외내지

첨단월세공인중개사
☎(대)972-4585
★ 급매매 ★
첨단중심 상업매매
첨단 원룸 건물 매매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건물
땅
주유소 전문중개
공장 매매
시외 고급주택

알파공인중개사
☎(대)974-0229
상업용 건물매매
토지 매매
주유소 전문중개
공장 매매
시외 고급주택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전대후론 중심상업용 상가주택
전대후론 노래방 70평
전대후론 대로변 1층 50평 상가
전대후론 퓨전소주방 45평
북구 용봉동 전대공대 건너편 맨션
★ 그의 업종별, 금액별 다수 물건 확보하고 있습니다 ★